

공공도서관 시니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Senior User

오 선 혜(Sun-Hye Oh)**

이 성 숙(Sung-Sook Lee)***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용자층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K-LAS를 이용하여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전체적인 도서관불안 점수는 2.95점으로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대학생과 지역주민의 불안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정보' 요소의 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도서관불안 점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도서관 이용목적이 문화강좌 참여인 시니어와 도서관 방문 빈도가 낮은 시니어일수록 도서관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니어의 도서관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measures library anxiety using K-LAS for senior users, who constitute the smallest part of a public library users group.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overall score of library anxiety was 2.95, which was higher than the score of university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measured in previous studies. It was analyzed that the anxiety score of 'Digital Information' factor was the highes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nxiety score was high in the old age group and the low education level group. Senior users whose intention of visit was to attend a community class and frequency of visit was lower showed higher library anxiety.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reduce library anxiety of senior users, based on the analysis findings.

키워드: 도서관불안, 공공도서관, 시니어, 노인, 고령자, 한국도서관불안척도

Library Anxiety, Public Library, Senior Users, Korea Library Anxiety Scale, K-LAS

*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mallosh@naver.com)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infolee@c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2년 2월 29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3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3월 12일

1. 서론

‘고령화’란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UN에서는 65살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을 때 ‘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진입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¹⁾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에 이어 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들 세대의 마지막 은퇴 시점인 2018년이 되면 고령층의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층의 양적 증가는 역으로 생산인구의 감소를 불러오며 더 넓게는 자산시장의 변화, 사회복지비용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 등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의식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니어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은 이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새로운 주도층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들은 인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은퇴 후

에도 능동적으로 삶을 꾸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들의 이런 성향이 ‘시니어 시장’이라는 거대 소비자 집단의 부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시니어 마케팅, 시니어비즈니스 등이 경제 전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해준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은 여전히 시니어층이며,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도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정보의 양과 생성 속도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시니어층의 정보 욕구를 공공도서관이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시니어 연구는 서비스 정책(김선호 2002), 인터넷기반서비스(장혜란 2002) 및 인터페이스(김선호 2003), 시니어에게 적합한 시설(김선호 2004)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김미초 2010; 배현숙 2009; 이미자 2004), 최근 들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박옥화 2007; 김영신 2007)가 진행되었지만 그들 자체에 관한 연구, 즉 그들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시니어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들이 공공도서관

1)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2006)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본 결과, 프랑스가 155년, 미국 88년, 독일 78년, 일본 36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막연한 두려움, 즉 '도서관불안'에 대해 K-LAS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불안의 요소를 규명하여 그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불안의 개념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Wilson(1981)은 도서관 이용자와 정보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은 이용자의 인지적 요구 뿐 아니라 정서적 요구에 의해 지배받는다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요구 중에 '불안'이라는 요구와 도서관을 접목시킨 '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이라는 개념이 Mellon(1986)에 의해 처음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 도입되었다.

Mellon은 20명의 대학 강사의 협조를 얻어 그들이 가르치는 작문 과목에서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는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5~85%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두려움, 압도되는 느낌, 해매는 느낌, 무력감, 혼란, 공포를 경험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도서관불안이라 칭하고 그의 원인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 ① 도서관의 규모에 위압감을 느낌
- ②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
- ③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함
- ④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

Mellon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서는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과 불안감은 도서관이용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가르치고 그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러한 교육이 인지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역부족이지만, 도서관 직원들로 인한 장벽을 줄임으로써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Mellon의 도서관불안이론은 도서관 이용자가 느끼는 정서적 장벽을 보다 큰 불안이론의 틀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경험을 보다 보편적인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도서관불안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2004)에서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가 느끼는 혼돈, 두려움, 좌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 도서관불안의 개념을 살펴보면, 남태우와 황옥경(2005)은 도서관불안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막연한 두려움'이라 정의하였고, 박현영(2006)은 '도서관 환경에서의 학습 및 연구에 관련한 정보탐색 전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되는 불안 감정'을 도서관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정수진 등(2009)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했을 때 이용자가 겪는 도서관 이용을 저해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가 2010년 개정 발행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도서관불안을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자료를 찾을 때에 주로 이용경험 부족으로 느끼는 혼란, 걱정, 실망 등의 통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불

안을 최근 개정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2.2 시니어의 정의 및 기준

시니어에 대한 정의는 시니어의 본질 및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학자들마다 내리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시니어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 ‘노인(老人)’은 사전적 의미로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미네소타 주 의학협회에서는 “호기심도 이상도 없이 매사에 무관심으로 영혼이 주름진 사람”으로 정의하여 삶에 대한 목적과 이상이 사라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1982년 7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노년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노인의 연령층을 60세 이상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국가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니어(Senior)’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연장자”라는 뜻과 “계급, 지위가 고위의, 스포츠에서 상급 수준에 이른 성인을 위해 지칭하는 것”이다. 박찬경(2011)은 시니어를 “노인의 의미와는 달리 삶에 대한 완성도와 숙련도가 높아 자신의 인생을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계층”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니어의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관련 법 및 선행연구마다 다양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관련법을 살펴보면 기준 연령이 제각각인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는 50세 이상~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를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하였다. 노인복지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주거시설 이용대상자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다.

윤가현(1999)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인으로 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나이에 따라서 특성이 매우 다르며, 노인들을 연구할 때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을 지어 구분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55-64세를 young-old 집단, 65-74세를 middle-old 집단, 75-84세를 old-old 집단으로, 85세 이상으로 very old 집단, 또 평균수명을 훨씬 지나서까지 장수한 노인들을 oldest-old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도 노년층에 포함시켜야 할 연령적 경계에 대해 ‘55세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노년층으로 접어들기 전에는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10~20년 더 짧게 지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노년층에 접어들었음을 인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교보생명과 시니어파트너즈가 발간한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니어 세대들은 ‘노인’의 기준 나이를 69.3세로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 실제 나이보다 평균 7.7세 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0-69세 남녀 1,000명 가운데 70-74세는 되어야 노인세대로 진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 75세는 넘어야 한다는 답변이 14.4%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또 심리적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36.9%는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6-10세 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6.2%는 1-5세 차이라고 답했다. 실제 나이보다 무려 11-15세 젊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16.6%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호칭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6.4%)이 '시니어(Senior)'를 꼽았으며, '실버(silver)'는 22.1%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는 13.4%가 선택했다. 고령자(5.7%), 노인(2.3%)이라는 표현은 일부만 선택했다. 이는 사회참여 기회 확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니어 그룹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옥화(2007)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 도서관 이용을 처음 시작한 응답자가 53%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50대가 19.7%, 60대가 3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김영신(2007)은 전기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진경(2007)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을 50세 이상의 노인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를 50세 이상의 예비 노인의 학습적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노인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선호(2003)는 우리나라의 정년퇴직이 대부분 50세부터 이루어지며, 55세 전후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여 공공도서관에서는 법률적 나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노인은 50세 이상부터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다양한 계층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정확하게 봉사대상을 선정하여야 그들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나이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이며, 시니어의 절반이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50대를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50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새로운 삶의 패턴을 경험하는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의 마케팅 시장이나 노인대상 연구에서는 비켜난 계층이기도 하다. 어쩌면 시니어로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있는 세대를 간과하고 있어 거시적 관점의 시니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도서관의 시니어 대상 연구는 초기 노인, 혹은 예비 노인이라 불리는 50대부터 연구되어야 함이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도 은퇴를 시작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포함한 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포괄적인 시니어계층의 도서관불안 요소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3.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시니어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도서관불안척도인 K-LAS의 여섯 가지 요소를 기본 요소로 채택하였다.

박현영(2006)은 K-LAS를 개발하기에 앞서 도서관불안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대학 및 도서관 환경의 변화,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경로 및 행태, 대학생들의 과제·연구 수행 과정, 도서관불안의 연구 모델, 선행 개발된 척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K-LAS의 문항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와 도서관 이용 후기 보고서 분석, 설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항을 척도화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성 검증을 통해 요소 수와 문항들을 추출하고,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척도화 방법으로는 3차의 설문조사와 재측정법을 수행하였으며, K-LAS를 이용하여 도서관 변인들과 도서관불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K-LAS는 정수진 외(2009)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단일 개념을 표현하는 도서관불안이 하나 이상의 문항으로 중복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 도서관불안 이외의 것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요소간 문항이 중복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디지털요소를 추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도서관 환경에 맞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아 본 연구의 기본 측정도구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K-LAS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문항이 도출되었고,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과는 맞지 않는 요소와 항목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종과 연구대상에 그대로 K-LAS의 항목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요소 및 문항의 용어를 시니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수정된 설문항목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니어 중 연령별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시니어의 문항해석력과 도서관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설문에 응답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검증받았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맞게 세 번째 요소인 '과제 및 연구' 요소를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로 수정하였다. 요소명은 도서관법 제2조의 도서관의 정의인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과 4항의 공공도서관의 정의인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하위 문항 중 과제에 관한 문항은 시니어들이 '과제'라는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박현영의 논문에서 참고한 2차 임시척도 문항 중 기존의 문항과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여 대체하였다. 네 번째 요소인 '디지털 정보' 요소 중 온라인 학술DB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거나 받기에는 대학도서관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며, 주 이용대상도 한정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과 온라인DB(도서검색DB를 포함한)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설문 문항은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코딩과정에서 높은 점수가 불안감이 큰 것을 의미하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방문목

적 등의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45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에 맞게 설문지를 구성하되, 이전의 도서관불안 조사와 달리 시니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문형 문장으로 바꾸어 구성하였다.

3.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며 대전 내 설치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50세 이상의 시니어로 선정하여 기존의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젊은 50세부터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의 도서관불안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역권별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는 2011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차는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3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73부가 회수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 스스로 기입할 수 있는 시니어의 경우 자기 기입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글을 모르거나 가독력이 떨어져 기입할 수 없는 시니어의 경우 연구자의 도움 아래 면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응답 중 설문에 대해 일관성이 없거나 응답 항목의 누락, 응답 내용의 불성실 등으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8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표본의 지역범위를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 이용자로 제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니어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3.3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9.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주제에 대한 여러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고, 나이, 학력, 도서관이용행태 등에 따라 도서관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서관불안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분석하여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였고, 각 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K-LAS의 각 질문 항목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6개의 요소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물리적·환경적' 요소는 0.915,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는 0.903,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 0.899, '디지털 정보' 요소는 0.907, '도서관 직원' 요소는 0.904, '심리적·정서적' 요소는 0.897로 나타났다. 6개 요소의 신뢰도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측정도구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응답자의 분포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이용목적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50대가 68명(40.5%), 60대가 56명(33.3%), 70대 이상이 44명(26.2%)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90명으로 53.6%, 여성이 78명으로 46.4%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이지만 남성 응답자가 7.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초졸이 7명(4.2%), 중졸은 30명(17.9%), 고졸은 86명(51.2%), 대졸이상은 45명(26.8%)으로 나타났다.

이용목적에 따른 분포는 도서 대출/반납이 65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학습이 28명(16.7%), 독서 및 신문열람이 40명(23.8%), 정보화교육을 포함한 문화강좌 참여가 35명(20.8%)으로 나타났다.

방문빈도에 따른 분포는 1일 1회 이상이 29명

(17.3%), 2~3일에 1회가 46명(27.4%), 1주에 1회가 54명(32.1%), 2주에 1회가 32명(19.0%), 1달에 1회 이하가 7명(4.2%)으로 나타났다.

4.3 기초 통계 분석

시니어의 전체적인 도서관불안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K-LAS에서 제시된 6개 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전체 설문 대상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된 시니어들의 도서관불안 점수 전체의 평균은 2.95점으로 나타났다. 6개 요소별 도서관불안점수를 비교해보면, '디지털 정보' 요소에서의 도서관불안점수가 평균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보이용 및 학습·연구' 요소가 평균 3.26점,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가 평균 3.24점, '심리적·정서적' 요소가 평균 2.89점, '도서관 직원' 요소가 평균 2.55점, '물리적·환경적' 요소가 평균 2.3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설문 응답자 분포 현황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연령	50대	68	40.5	이용목적	도서대출/반납	65	38.7
	60대	56	33.3		개인학습	28	16.7
	70대 이상	44	26.2		독서 및 신문열람	40	23.8
	합계	168	100.0		문화강좌참여	35	20.8
성별	남	90	53.6	합계	168	100	
	여	78	46.4	방문빈도	1일 1회 이상	29	17.3
	합계	168	100.0		2-3일에 1회	46	27.4
학력	초졸	7	4.2		1주에 1회	54	32.1
	중졸	30	17.9		2주에 1회	32	19.0
	고졸	86	51.2		1달에 1회 이하	7	4.2
	대졸이상	45	26.8		합계	168	100
	합계	168	100.0				

〈표 2〉 시니어들의 도서관불안 기초통계

요 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물리적·환경적	168	1.00	3.83	2.35	0.74	0.06
도서관 이용 및 지식	168	1.56	4.78	3.24	0.82	0.06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168	1.67	4.83	3.26	0.70	0.06
디지털 정보	168	1.43	4.86	3.38	0.82	0.06
도서관 직원	168	1.00	4.60	2.55	0.87	0.07
심리적·정서적	168	1.29	5.00	2.89	0.89	0.07
전 체	168	1.33	4.65	2.95	0.81	0.06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K-LAS로 도서관불안을 측정된 선행 연구와 비교해보면 전체 도서관불안 점수는 장보성 외(2010)의 장애인 대상 연구의 3.15보다는 낮은 수치이고, 박현영과 남태우(2007)의 대학생 대상 연구의 1.62(A집단), 1.83(B집단)²⁾

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LAS의 도서관불안 측정의 영역은 5개 요소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K-LAS의 6개 영역과 수적인 차이가 있으나, K-LAS가 LAS와 MLAS의 공통요소 추출과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그 중 공통영역인 도서관

〈표 3〉 선행연구와의 도서관불안 점수 비교

연구	측정도구	요소							평균	연구대상	
		물리적·환경적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정보이용 연구·학습	디지털 정보	도서관 직원	심리적·정서적	평균			
본 연구	K-LAS	2.35	3.24	3.26	3.37	2.55	2.89	2.95	시니어		
박현영, 남태우(2007)	"	1.25	1.72	1.84	1.81	1.70	1.41	1.62	A	대학생	
		1.29	1.92	2.05	2.14	1.87	1.71	1.83	B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2010)	"	3.34	3.01	3.14	2.98	3.27	3.33	3.15	장애인		
연구	LAS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 지식	-	기계적 장비	도서관 직원	정서적 장비	평균			
Bostick(1992)	"	2.94	3.65	-	2.75	2.49	2.48	2.73	대학생, 대학원생		
장혜란, 오의경(2008)	"	2.50	2.22	-	2.52	2.62	2.53	2.55	대학생		
김홍렬(2008)	"	2.55	2.61	-	2.56	2.60	2.54	2.57	지역주민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2010)	"	2.59	2.51	-	2.70	2.57	2.65	2.60	외국인 유학생		

2) 박현영과 남태우(2007)의 연구는 대학생을 이용빈도에 따라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코딩과정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도서관불안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 점수를 역으로 반영하였다.

편안함, 이용에 대한 인식, 도서관 건물, 도서관 기기 등의 불안 요소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K-LAS에서 추가된 한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 요소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각 요소별 점수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를 비교해보면, Bostick의 연구에서 산출된 2.73, 장혜란과 오희경(2006)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산출된 2.55, 김홍렬(2008)의 지역주민 대상 연구에서 산출된 2.57, 남영준 외(2010)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연구의 2.60 보다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관중이 같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요소별로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도서관불안이 '물리적·환경적' 요소의 점수가 3.34점과 지역주민의 도서관 직원 장벽이 2.60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에 비해, 시니어들은 '물리적·환경적' 요소(2.35점)와 '도서관직원' 요소(2.55점)가 도서관불안 요소 중 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된 점이 차이점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디지털정보' 요소가 모든 선행연구에서는 3점을 넘지 않은 것에 비해 3.37의 높은 불안 점수가 나타난 것이 눈여겨 볼만 하다.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와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도 모두 3점을 넘는 높은 점수로 불안이 높지 않은 요소와의 점수 편차가 심하다는 점 또한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도서관불안 점수로 볼 때 시니어들은 디지털기기나 정보검색시스템 등에서 가장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접할 기회가 적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 이용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이러한 분석결과

가 나온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정보' 요소 중 "검색 결과에 책의 내용에 관한 도움말이 없어 막막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불안 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도서검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더라도 검색된 자료가 적합한 자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도서관 직원' 요소와 '심리적·정서적' 요소는 낮은 것으로 측정되어 도서관을 찾는 시니어들은 도서관과 직원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친숙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물리적' 요소의 불안점수는 2.35점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는데, 대부분의 설문문항이 자료실 내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 요소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며,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서구와 유성구 시니어들의 설문을 진행하는 동안 '자료실 자체만을 보면 특별한 불만은 없지만 노인을 위한 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기타의 답변들이 수시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4 변수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4.4.1 연령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연령에 따른 도서관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50대에서 7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연령대별 도서관불안점수는 <표 4>와 같다.

연령에 따라 6개의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6개 모두 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표 4〉 연령에 따른 도서관불안

요 소	연 령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물리적·환경적	50대	68	2.21	0.68	0.08	4.085	0.019*
	60대	56	2.57	0.79	0.11		
	70대 이상	44	2.30	0.70	0.11		
	합계	168	2.35	0.74	0.06		
도서관 이용 및 지식	50대	68	2.83	0.76	0.09	18.652	0.000***
	60대	56	3.48	0.70	0.09		
	70대 이상	44	3.61	0.78	0.12		
	합계	168	3.25	0.82	0.06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50대	68	3.04	0.65	0.08	5.896	0.003**
	60대	56	3.44	0.64	0.09		
	70대 이상	44	3.36	0.79	0.12		
	합계	168	3.25	0.71	0.05		
디지털 정보	50대	68	2.96	0.74	0.09	18.268	0.000***
	60대	56	3.68	0.58	0.08		
	70대 이상	44	3.63	0.92	0.14		
	합계	168	3.38	0.82	0.06		
도서관 직원	50대	68	2.28	0.87	0.11	6.193	0.003**
	60대	56	2.79	0.70	0.09		
	70대 이상	44	2.66	0.95	0.14		
	합계	168	2.55	0.87	0.07		
심리적·정서적	50대	68	2.61	0.79	0.10	6.798	0.001**
	60대	56	3.17	0.80	0.11		
	70대 이상	44	2.95	1.02	0.15		
	합계	168	2.89	0.89	0.07		

* p<0.05, ** p<0.01, *** p<0.001

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요소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도서관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것이 나타났으며, 모든 요소에서 50대보다 60대의 도서관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를 제외한 5개 요소에서 60대보다 70대의 도서관불안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50대와 60대 시니어보다 70대 이상 시니어들이 대부분 도서관 환경과 서비스, 직원에 상당부분 만족하고 있어 불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0대와 60대 이상의 편차가 가장 큰 요소는 ‘디지털정보’ 요소로, 50대가 2.96, 60대가 3.68, 70대 이상이 3.63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을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연령별 도서관불안 점수 차이가 높은 요소는 ‘도서관이용 및 지식’ 요소로 50대가 2.83, 60대가 3.48, 70대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요소는 자료실을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불안을 묻는 문항이 대부분인데, 60대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는 시니어들의 자료실 이용행태를 보면 원하는 도서를 찾을 때 도서검색

DB 사용 자체를 어렵게 느껴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원하는 도서를 정하고 검색하기 보다는 서가브라우저에 의해 도서를 찾는 경우가 많아 도서검색과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4.4.2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에 따라 6개의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든 요소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3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의 학력에는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초졸과 중졸의 표본이 적

어 함께 묶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학력에 따라 6개의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력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 및 도서관 지식' 요소,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직원'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고학력의 시니어들이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졸이하의 저학력 시니어들의 도서관불안이 가장 큰 요소는 '디지털 정보' 요소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가 3.69, 고졸이 3.45, 대졸 이상이 2.98로 나타나 여섯 개 요소 중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시니어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문항 중 '도서검색'과 '데이터베이스' 등의 용어 자체에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과 디지털 기기 사용의 기회와 빈도가 높지 않아 나온 결과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정보' 요소 다음으로 '도서관이용 및 지식' 요

<표 5>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요 소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유의확률
물리적·환경적	남자	90	2.35	0.76	0.08	0.029	0.977
	여자	78	2.35	0.71	0.08		
도서관 이용 및 지식	남자	90	3.25	0.86	0.09	-1.449	0.149
	여자	78	3.25	0.77	0.09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남자	90	3.18	0.78	0.08	0.006	0.995
	여자	78	3.34	0.61	0.07		
디지털 정보	남자	90	3.38	0.89	0.09	-0.605	0.547
	여자	78	3.38	0.72	0.08		
도서관 직원	남자	90	2.50	0.94	0.10	-0.728	0.468
	여자	78	2.60	0.78	0.09		
심리적·정서적	남자	90	2.86	0.96	0.10	-0.387	0.699
	여자	78	2.91	0.82	0.09		

* p<0.05, ** p<0.01, *** p<0.001

〈표 6〉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

요 소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물리적·환경적	중졸이하	37	2.57	0.74	0.12	2.911	0.057
	고졸	86	2.35	0.71	0.08		
	대졸 이상	45	2.18	0.75	0.11		
	합계	168	2.35	0.74	0.06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중졸이하	37	3.60	0.88	0.14	12.569	0.000***
	고졸	86	3.34	0.72	0.08		
	대졸 이상	45	2.79	0.76	0.11		
	합계	168	3.25	0.82	0.06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중졸이하	37	3.57	0.66	0.11	8.090	0.000***
	고졸	86	3.27	0.71	0.08		
	대졸 이상	45	2.96	0.62	0.09		
	합계	168	3.25	0.71	0.05		
디지털 정보	중졸이하	37	3.69	0.78	0.13	9.085	0.000***
	고졸	86	3.45	0.85	0.09		
	대졸 이상	45	2.98	0.63	0.09		
	합계	168	3.38	0.82	0.06		
도서관 직원	중졸	37	3.05	0.78	0.13	10.825	0.000***
	고졸	86	2.50	0.85	0.09		
	대졸 이상	45	2.22	0.79	0.12		
	합계	168	2.55	0.87	0.07		
심리적·정서적	중졸	37	3.48	0.84	0.14	16.103	0.000***
	고졸	86	2.86	0.87	0.09		
	대졸 이상	45	2.45	0.71	0.11		
	합계	168	2.89	0.89	0.07		

* p<0.05, ** p<0.01, *** p<0.001

소,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 등에서 저학력 시니어들의 도서관불안 점수가 3.5를 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의 편차가 가장 큰 요소는 '심리적·정서적' 요소로, 중졸 이하가 3.48, 고졸이 2.86, 대졸 이상이 2.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편차가 큰 요소는 '도서관직원' 요소로 중졸 이하가 3.05, 고졸이 2.50, 대졸 이상이 2.2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학력의 시니어일수록 도서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의 부끄러움과 도서관 규칙의 엄격함 등 심리적 도서관불

안이 크며, 정보욕구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선뜻 도서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환경적' 요소에서는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 도서관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도서관이용목적에 따라 도서관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용목적과 관련해 도서대출/반납, 개인학습, 독서 및 신문열람, 문화강좌 참여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이용목적에 따라 6개의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물리적·환경적' 요

소, '도서관의 이용 및 도서관 지식' 요소, '정보 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직원'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대체로 문

<표 7> 도서관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불안

요 소	이용목적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물리적·환경적	도서대출/반납	65	2.37	0.73	0.09	1.233	0.299
	개인학습	28	2.32	0.65	0.12		
	독서 및 신문열람	40	2.20	0.83	0.13		
	문화강좌 참여	35	2.52	0.68	0.11		
	합계	168	2.35	0.74	0.06		
도서관 이용 및 지식	도서대출/반납	65	3.32	0.85	0.11	2.111	0.101
	개인학습	28	2.94	0.76	0.14		
	독서 및 신문열람	40	3.20	0.76	0.12		
	문화강좌 참여	35	3.42	0.85	0.14		
	합계	168	3.25	0.82	0.06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도서대출/반납	65	3.25	0.69	0.09	2.063	0.107
	개인학습	28	3.04	0.71	0.13		
	독서 및 신문열람	40	3.22	0.76	0.12		
	문화강좌 참여	35	3.48	0.64	0.11		
	합계	168	3.25	0.71	0.05		
디지털 정보	도서대출/반납	65	3.21	0.78	0.10	2.171	0.093
	개인학습	28	3.31	0.84	0.16		
	독서 및 신문열람	40	3.53	0.81	0.13		
	문화강좌 참여	35	3.57	0.82	0.14		
	합계	168	3.38	0.82	0.06		
도서관 직원	도서대출/반납	65	2.55	0.92	0.11	0.266	0.850
	개인학습	28	2.52	0.93	0.18		
	독서 및 신문열람	40	2.47	0.87	0.14		
	문화강좌 참여	35	2.65	0.74	0.12		
	합계	168	2.55	0.87	0.07		
심리적·정서적	도서대출/반납	65	2.83	0.91	0.11	1.041	0.376
	개인학습	28	2.69	0.80	0.15		
	독서 및 신문열람	40	2.97	0.88	0.14		
	문화강좌 참여	35	3.05	0.94	0.16		
	합계	168	2.89	0.89	0.07		

* p<0.05, ** p<0.01, *** p<0.001

화강좌 참여가 목적인 시니어의 도서관불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의 불안점수가 3.42, '정보이용 및 학습·연구' 요소의 불안점수가 3.48, '디지털 정보' 요소의 불안점수가 3.57로 주로 자료실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불안 요소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 속하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문화강좌 참여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여 도서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자료실이나 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료실과 관련한 항목에서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서대출/반납이 이용목적인 시니어의 '도서관이용 및 지식' 요소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온 것은 시니어들의 자료실 이용행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니어들은 원하는 도서를 지정하고 찾기 보다는 주로 브라우저에 의존하며, 원하는 도서가 뚜렷하게 있다고 해도 직원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반대로 개인학습과 독서 및 신문열람이 이용목적인 시니어들의 도서관불안이 대부분의 요소에서 낮게 측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용목적 가진 시니어들은 1일 1회, 2-3일에 1회 등 비교적 도서관을 자주 찾는 집단이며, 자료실 내에서 스스로 자료를 찾고 어려움 없이 정보를 해결하는 집단에 속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4.5 도서관방문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도서관방문빈도에 따라 도서관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방문빈도와 관련하여 1일 1회 이상, 2~3일에 1회,

1주에 1회, 2주에 1회, 1달에 1회 이하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방문빈도에 따라 6개의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문빈도에 따라 '물리적·환경적' 요소,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 '도서관 직원'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물리적·환경적' 요소에서는 1달에 1회 방문하는 시니어들의 불안 점수가 2.74점으로 나타났고, 1일 1회 이상 방문하는 시니어들의 불안점수가 1.91점으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1달에 1회 방문하는 시니어의 불안점수가 가장 높은 요소는 '도서관이용 및 지식' 요소로 불안점수는 3.83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서관을 자주 찾는 시니어일수록 도서관불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1주에 1회 이용하는 시니어의 불안이 2주 1회 이용하는 시니어보다 불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분석된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과 관련된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문화강좌가 1주일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1주일 1회 이용하는 시니어와 문화강좌 참여가 목적인 시니어의 도서관 불안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문열람과 독서 등을 위해 거의 매일 도서관을 찾거나, 2주일인 도서대출 기간에 맞게 도서관을 찾는 시니어들의 도서관 불안 점수가 낮은 것도 위의 도서관 이용목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 요소에서는 방문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도서관방문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요 소	방문빈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물리적·환경적	1일 1회 이상	29	1.91	0.52	0.10	7.095	0.000***
	2~3일에 1회	46	2.24	0.68	0.10		
	1주에 1회	54	2.69	0.73	0.10		
	2주에 1회	32	2.26	0.76	0.13		
	1달 1회 이하	7	2.74	0.58	0.22		
	합계	168	2.35	0.74	0.06		
도서관 이용 및 지식	1일 1회 이상	29	2.99	0.65	0.12	5.420	0.000***
	2~3일에 1회	46	2.99	0.78	0.12		
	1주에 1회	54	3.57	0.88	0.12		
	2주에 1회	32	3.19	0.76	0.13		
	1달 1회 이하	7	3.83	0.53	0.20		
	합계	168	3.25	0.82	0.06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1일 1회 이상	29	2.86	0.66	0.12	8.323	0.000***
	2~3일에 1회	46	3.09	0.65	0.10		
	1주에 1회	54	3.62	0.66	0.09		
	2주에 1회	32	3.15	0.68	0.12		
	1달 1회 이하	7	3.60	0.37	0.14		
	합계	168	3.25	0.71	0.05		
디지털 정보	1일 1회 이상	29	3.29	0.94	0.17	1.929	0.108
	2~3일에 1회	46	3.20	0.67	0.10		
	1주에 1회	54	3.60	0.84	0.11		
	2주에 1회	32	3.27	0.86	0.15		
	1달 1회 이하	7	3.61	0.45	0.17		
	합계	168	3.38	0.82	0.06		
도서관 직원	1일 1회 이상	29	2.10	0.58	0.11	4.615	0.001**
	2~3일에 1회	46	2.39	0.79	0.12		
	1주에 1회	54	2.85	0.85	0.12		
	2주에 1회	32	2.61	1.04	0.18		
	1달 1회 이하	7	2.86	0.79	0.30		
	합계	168	2.55	0.87	0.07		
심리적·정서적	1일 1회 이상	29	2.60	0.56	0.10	3.995	0.004**
	2~3일에 1회	46	2.75	0.86	0.13		
	1주에 1회	54	3.25	1.02	0.14		
	2주에 1회	32	2.68	0.81	0.14		
	1달 1회 이하	7	3.10	0.75	0.28		
	합계	168	2.89	0.89	0.07		

* p<0.05, ** p<0.01, *** p<0.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느끼는 도서관불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들의 도서관불안은 기존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디지털 정보' 요소와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의 불안 점수가 3점을 넘는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불안점수가 높은 '도서관직원' 요소와 '물리적·환경적' 요소의 불안 점수는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도서관불안이 높은 요소와 낮은 요소의 편차가 큰 것이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령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50대와 60대 이상간의 도서관불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도서관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대별로 가장 편차가 큰 요소는 '디지털 정보' 요소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도서관불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도서관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 시니어들은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 '정보이용 및 연구·학습' 요소에서 높은 불안감을 보였으며, 반대로 고학력의 시니어는 모든 요소에 걸쳐 낮은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학력 시니어와 저학력 시니어의 도서관불안 편차가 가장 큰 요소는 '심리

적·정서적' 요소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서관이용목적이 주로 '문화강좌 참여'인 시니어의 도서관불안감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목적이 독서와 신문열람과 같이 자료실을 편하게 이용하는 시니어의 경우는 도서관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강좌와 같이 자료실과 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도서관불안이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도서관방문빈도와 관련하여 도서관을 더 자주 찾는 시니어일수록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며, 자주 방문하지 않는 시니어일수록 도서관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일 1회 이상, 2-3일에 1회 등 비교적 자주 도서관을 찾는 시니어의 도서관불안이 모든 요소에서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1주에 1회 도서관을 찾는 시니어와 2주에 1회 도서관을 찾는 시니어 중에서는 1주일에 1회 도서관을 찾는 시니어의 도서관불안이 더욱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도서관방문목적과 관련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문화강좌가 1주일에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점과, 대전광역시의 도서대출기간이 2주인 점에 비추어 보면 문화강좌를 참여하는 시니어가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시니어보다 더 불안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시니어는 물리적·환경적·정서적 불안보다 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용 관련 요소에 대한 불안감이 대체적으로 높으며, 연령과 학력, 도서관이용목적, 도서관방문횟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니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줄이고, 도서관과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시니어들은 대체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보이용 및 학습·연구' 요소,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디지털 정보와 도서관이용에 관한 지식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도서관에서 정보획득에 실패했을 때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시니어 맞춤형으로 개발 및 운영하여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이해시켜야 한다.

둘째, 도서관 이용빈도가 도서관불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니어일수록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며,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은 시니어일수록 도서관불안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내 시니어 전용 공간을 설치하여 시니어들이 좀 더 도서관을 자주 찾고 오랜 시간 머물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도서관을 자주 찾는 것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시니어의 도서관 불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시니어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마련으로 도서관 자체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니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강좌의 시니어반 별도 운영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자주 찾을 수 있게 하는 외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었다면, 도서관을 통해 소외감을 줄이고 도서관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 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화구연'이나 '인형극' 봉사단은 시니어의 관심을 도서관의 본질인 '독서'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이며, '열람지도' 봉사단은 도서관 자체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니어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안에 대한 연구로,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노인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진 이른바 뉴시니어, 액티브시니어들을 위한 연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보생명, 시니어파트너즈, 2011,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 서울: 시니어파트너즈.
권나현, 2004, 디지털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

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47.
김미초, 2010, 『공공도서관의 노인대상 프로그

- 램 개발연구: 서울시 노인 종합복지관과 비교하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선호. 2004. 공공도서관의 노인편의증진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167-178.
- _____. 2003. 공공도서관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111-124.
- _____. 2002.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01-123.
- 김영신. 2007. 공공도서관 노령자서비스에 대한 잠재이용자 인식 연구: 대전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55-79.
- 김홍렬. 2008.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461-478.
-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 2010.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13-332.
- 남태우, 황옥경. 2005. 도서관불안 이론의 고찰. 『情報管理學會誌』, 22(3): 71-84.
- 박옥화. 2007.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75-396.
- 박현영. 2006.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현영, 남태우. 2007. 대학생의 도서관불안 완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411-429.
- 배현숙. 2009. 『공공도서관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명진. 2005. 『정보이용교육이 도서관불안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가현. 1999. Editorial Comment: 노인의 기준. 『韓國老年學研究』, 1999(8): 3-4.
- 이미자. 2004. 『노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문헌정보대학원.
- 이진경. 2007. 『공공도서관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배경과 만족도 조사 분석: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2010.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09-327.
- 장혜란, 오의경. 2006.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情報管理學會誌』, 23(3): 205-221.
- 장혜란. 2002.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기반 정보서비스 구축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19(4): 185-212.
- 정수진 외. 2009.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LAS)의 통계적 분석. 『제16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173-179.
- 통계청. 2011. 『2011년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and*

-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of
the Wayne State University.
- Mellon, Constance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 160-165.
- Ouwuegbuzie, A. J., Q. G. Jiao, and S. L.
Bostick. 2004. *Library Anxiety: Theo-
ry, Research, and Applications*. Oxford:
The Scarecrow Press.
- Reitz, Joan M. 2004.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stport: A
Member of the Greenwood Inc., Pub-
lishing Group.
- Wilson, T. D. 1981. "On User Studies and Infor-
mation Needs." *Journal of Documenta-
tion*, 37(1): 3-15.